



“후반기 출범 1주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12대 후반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7월 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민과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슬로건 아래 실천해 온 의정 성과를 돌아보며 남은 임기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후반기 1주년...도민과 함께 ‘소통 의정’ 방점

지난해 7월 출범 이후
도민 중심 의정 실현

7월 8일 기념식 개최
1년간 주요 성과 공유

인사권 독립 이후 첫
모범공무원 포상 단행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7월 출범 이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의정 구호로 내세우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도민 소통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고물가·경기 침체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범도민 소비 촉진 협의체 운영, 탐나는전 인센티브 확대 등 다양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더불어 도민 복지 확대를 위한 조례 제·개정,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 등 의회의 본분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며 주목을 받았다.

이상봉 의장은 “제12대 후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슬로

건 아래 견제와 감시, 균형과 협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심 없이 달려왔다”라며 “앞으로 남은 의정 활동 기간에 지난 1년의 미흡함을 성찰하고, 그간의 의정 성과를 발판 삼아 민생의 작은 부분 하나도 놓치지 않으며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도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1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식이 지난 7월 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민과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합창단과 가수 강허달림의 공연으로 시작됐으며, 후반기 1년간의 기록 영상 상영을 통해 성과를 돌아보는 시

간을 가졌다.

또한 인사권 독립 이후 처음으로 모범공무원 포상을 단행한 가운데, 적극적으로 의정 업무를 추진한 총무담당관실 김선익 주무관에게 증서 수여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 1년간 의정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 49명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특히 이번 표창패의 경우 ESG 행정 실천의 하나로 친환경 원목 소재로 제작됐으며, 불필요한 포장을 줄이고 종이 케이스로 대체하는 등 지속가능성의 의미를 더했다.

기념식 행사 마지막에는 도민과 의원이 함께하는 퍼포먼스 및 기념 촬영을 통해 남은 후반기 1년, 민생 의정 활동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지면안내

2

제440회 임시회

3~5

주요 이슈

6~7

함께 합시다

8

사무처 소식

QR코드를 스캔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월간 「도민광장」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 쿠폰, 탐나는전 사용으로 소비 진작”

제440회 임시회 개회사

7월 16일 원포인트 임시회 열려
의회운영위·윤리특위 위원 선임

“관광객 증가세 전환, 매우 고무적
관광업계·지역사회 힘 모아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7월 16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었다.

이날 임시회는 새로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구성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변경 및 추가 선임의 건이 상정, 의결됐다.

이상봉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제4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

회는 새롭게 선출된 교섭단체 대표를 의회운영위원 및 윤리특별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다”라며 “하루 일정의 짧은 회기이지만, 의회 운영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다지고 의정활동에 탄력을 더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상봉 의장은 이어 “정부는 7월 21일부터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 될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행한다”라며 “도정에서는 소비 쿠폰 신청 수단을 탐나는전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지역 내에서 소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아울러 도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동참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힘이 되고, 침체한 지역경제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상봉 의장은 특히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라며 “7월 들어 15일까지 제주 방문 관광객은 44만 5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소폭 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국인 관광객이 6월과 달리 반등세로 돌아선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여행 지원금 지급과 해수욕장 시설 요금 인하 등 다양한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이상봉 의장은 이와 함께 “제주가 믿고 찾는 품격 있는 관광지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관광업계와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상봉 의장은 지난 7월 18일 열린 제주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행사를 언급하며 “제주4·3은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폭력의 역사이자, 침묵과 왜곡 속에서도 진실을 향해 나아간 도민들의 용기 있는 여정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억압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지켜낸 목소리이며, 고통을 넘어 화해와 상생으로 나아간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덧붙였다.

이상봉 의장은 “4·3의 역사적 의미를 널리 알리고 등재 과정에서 뜨거운 연대를 보여준 국민과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밝히며 개회사를 마쳤다.

한편, 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8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열린다. 제441회 임시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전도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하세요~!

탐나는전으로 신청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이 됩니다

1차 신청 ‘25. 7. 21.(월) ~ 9. 12.(금)’

지원규모 제주 1인당 18만원 ~ 53만원
 (1차) 1인당 15만원 ~ 40만원 + (제주) 비수도권 3만원
 ※ 일반 15만원, 차상위·한부모 30만원, 기초수급자 4만원
 (2차) 국민의 90% 1인당 10만원 (소득 상위 10% 제외)

신청방법 탐나는전(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충전
사용기한 ‘25. 11. 30.(일)까지 사용
 ※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탐나는전 신청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도의회 의정 아카데미’ 하반기 교육과정 운영

만 19세 이상 도민 대상
8월 2일~9월 27일 진행

‘2025년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 아카데미’가 오는 8월 2일 개강한다.

민주사회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도민이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하반기 의정 아카데미는 오는 8월 2일부터 9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진행된다.

상반기에 진행됐던 의정 아카데미에 대한 도민 호응에 힘입어 상반기 40명이었던 수강 정원도 50명으로 확대됐다.

교육은 ▲민주주의와 시민 참여 제도 ▲의회 운영과 예산, 조례 제정 등 지방자치 이해 ▲갈등 해결 및 정책 공론화 과정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부동산 전세 거래 제도 ▲풍수인테리어 이해와 활용 ▲만성질환 관리 ▲제주 신화 이야기 ▲재즈 이야기 등 다양한 소양 교육도 함께 마련됐다.

이번 하반기 의정 아카데미에는 양석원 민주주의피트니스 강사가 ‘시민이 만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주제로 강의에 나선 예정이다.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고문은 ‘조례의 이해와 주민 조례 만들기’로 이번 의정 아카데미에 함께한다.

또한 위성곤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국회’를 주제로,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은 ‘지방의회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자로 참여한다.

이상봉 의장은 “올해 두 번째로 운영되는 의정 아카데미를 통해 도민들이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정책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도민 중심 민생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기타 문의사항은 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소통협력팀(☎ 741-1981~3)으로 하면 된다.

제4기 교섭단체 원내대표단 구성



송창권 원내대표



김항국 원내대표



강동우 원내대표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기 교섭단체 원내대표단 구성이 마무리됐다.

제4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송창권 원내대표(외도·이호·도두동)를 비롯해 7명으로 구성됐다.

수석부대표에는 김승준 의원(한경·추자면)이, 부대표에는 하성용 의원(안덕면)과 김기환 의원(이도2동갑)이 임명됐다.

정책위의장으로 강성의 의원(화북동)이, 민생위원장에 김경미 의원(삼양·봉개동)이, 대변인에 홍인숙 의원(아라동갑)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송창권 원내대표는 “제주의 변화는 도민 삶의 변화에서 시작된다고 믿는다”라며 “도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생활 속에서 답을 찾는 원내대표단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제4기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김항국 의원(용담1·2동)을 원내대표로 하는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제4기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총 5명으로 구성됐다.

김항국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수석부대표 원화자 의원(비례대표), 정책위의장에 현기종 의원(성산읍), 대변

인에 강하영 의원(비례대표), 원내총무에 이남근 의원(비례대표)이 각각 선임됐다.

김항국 원내대표는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기쁨보다는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도민이 처한 문제를 대신 해결하는 믿음직한 동반자가 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교육위원으로 구성된 미래제주 원내대표로는 강동우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동부)이 이름을 올렸다.

강동우 원내대표는 “이번에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미래의 제주 교육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라며 “교육의원 제도가 일몰됨에 따른 교육자치에 대한 대안도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동우 원내대표는 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읍·면 지역 소규모 학교 체제 개편 등 제주 교육의 앞날에 대한 고민을 의정활동으로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소통의 날...환경 보전 중요성 공유

7월 16일 CGV 제주 노형서
영화 ‘씨그널:바다의...’ 관람
출연자 해녀 이유정 씨도 참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7월 공감·소통의 날은 바다 환경 다큐멘터리영화 ‘씨그널:바다의 마지막 신호’를 관람하는 시간으로 꾸러졌다.

제주 해녀와 해양 환경 보전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된 행사는 지난 7월 16일 CGV 제주 노형점에서 의

원과 사무처 직원, 제주해녀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영화 ‘씨그널:바다의 마지막 신호’는 7월 16일 개봉한 해양 다큐멘터리로 해양 오염과 생태계 위기의 현실을 조명하고 있다.

특히 영화에는 제주 해녀 이유정 씨가 출연해 해녀로 사는 삶과 바다와의 교감을 통해 얻은 목소리들을 전했다.

이유정 씨는 이날 행사에도 함께 자리해 “바다는 제게 삶이자 가족 같은 존재이며, 그런 바다가 병들어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이를 이야기할 수

있어서 영화 출연이 더욱 뜻깊게 다가왔다”라며 “이 영화를 통해 더 많은 분이 바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기를 바란다”라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이상봉 의장은 “제주의 핵심 생태자원인 바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환경 보전의 필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이번 관람이 단순한 문화 향유가 아닌 의회 구성원과 도민이 함께 환경 의식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의 가치를 공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하성용·현지홍 의원 ‘혁신 리더 대상’ 영예

의정발전공헌 부문 수상
지역사회 발전 공로 인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과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제32회 혁신 리더 대상’ 의정발전공헌 부문 의정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뉴스와 시사매거진2580이 공동 주최하는 혁신 리더 대상은 국정, 행정, 의정, 인물, 리더, 브랜드 등 6개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혁신적인 정책 추진에 이바지한 인물들을 발굴하고 시상하고 있다.

하성용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회 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성용

현지홍

안」,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현지홍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노인복지 정책 기반 조성에 앞장서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보건복지안전위원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간병인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간병비 지원 조례」 등의 대표 발의와 노인복지지원센터 이전 및 노후 경로당 기능 보강 개선 건의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섰다.

하성용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지역 활동과 사회보장에 대한 행정능률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현지홍 의원은 “노인의 돌봄은 물론 여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에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상식은 지난 6월 30일 서울 한국경제인협회회관에서 개최됐다.

제4기 예결특위 구성 위원장에 강상수 의원

부위원장에 김승준 의원



강상수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439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강상수 의원(국민의힘, 정방·중앙·천지·서홍동)을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부위원장으로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이 이름을 올렸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강하영(국민의힘, 비례대표)·강봉직(더불어민주당, 애월읍)·고의숙(교육의원, 제주시 중부)·김경학(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김기환(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박두화(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송영훈(더불어민주당, 남원읍)·양영수(진보당, 아라동)·원화자(국민의힘, 비례대표)·이남근(국민의힘, 비례대표)·이경심(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현기종(국민의힘, 성산읍)·홍인숙(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 위원이 이름을 올렸다.

강상수 위원장은 “앞으로 1년간 동료 위원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도와 교육청의 예·결산 심사 등 위원회가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한정된 재원이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1년간 활동하면서 도 및 교육청 예산안, 결산 등을 심사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민생간담회’ 전개

7월 17일 제주오일장서
소상공인·상인 등 소통
‘현장 의정’ 지속 예고해

새롭게 구성된 제4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이 현장 목소리 반영을 위한 현장 의정활동으로 ‘민생간담회’의 지속 개최를 예고했다.

지난 7월 17일 오전 제주시민속오일시장 고객지원센터 2층 회의실에서 열린 ‘민생간담회’가 그 처음으로, 소상공인과 상인, 옥외광고업계 관계자들과의 소통에 나섰다.

이날 송창권 원내대표(외도·이호·도

두동)를 비롯한 이상봉 의장, 하성용 부대표(안덕면), 김기환 부대표(이도2동갑), 강성의 정책위의장(화북동), 홍인숙 대변인(아라동갑), 박호형 행정자치위원장(이도2동), 양영식 농수축경제위원장(연동갑), 강봉직 의원(애월읍), 이경심 의원(비례대표)이 자리했다.

또한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동문공설시장, 함덕오일시장 상인회장 및 임원진과 도 소상공인연합회, 제주시 옥외광고협회 회장 및 임원진 등 관계자들로부터 전통시장 운영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현안과 제도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원내대표단은 전통시장 환경 개선과 상권 회복 지원,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 규제 합리화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도의회 차원의 제도적 대응과 정책적 뒷받침을 약속했다.

이번 민생간담회에서 송창권 원내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 경제 최전선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소상공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도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민생의회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송창권 원내대표는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민생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민과의 소통과 현장 중심 정책 형성을 통해 민생 회복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존중사회 의원연구포럼, 제주항 방문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 개최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 청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주노동존중사회 의원연구포럼(대표 의원 양경호, 더불어민주당, 노형동 갑)은 2025년 두 번째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의 일환으로 지난 6월 30일 제주항 임항창고와 무더위 항만 하역노동자 쉼터를 방문했다.

항만 관계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고 정책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현장 간담회에는 양경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정민구 부대표(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고의숙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중부)과 제주특별자치도항만물류협회 박남진 위원장과 제주특별자치도항만물류협회 강영근 회장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주항 임항창고의 시설 낙후로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으며, 항만 노동자



들의 노동 여건이 열악한 만큼 복지시설과 휴게 시설 등의 보완이 요구됐다.

양경호 대표의원은 “항만 노동은 여전히 높은 강도와 위험성을 동반하는 업종이며, 산재 문제와 고용 불안 등

복합적인 노동 문제가 상존한다”라며 “간담회가 단순한 의견 청취를 넘어 실질적인 변화와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도의회 차원에서도 열악한 제주항만의 상황을 인식하고, 항만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도시 계획 활용, 원도심 주차 문제 해소 방안 모색

제주도시·교통문제 연구회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주도시·교통문제 연구회(대표의원 강상수, 국민의힘, 정방·중앙·천지·서흥동)는 지난 7월 16일 제주도의회 소통마당에서 ‘제주 도시 계획을 활용한 원도심 등 주차 문제 해소 방안 연구 중간 보고회 및 토론회’를 개최

했다.

이날 조항웅 인트랜 대표는 ‘서귀포시 주차실태 및 원인과 해결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원도심 주차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조항웅 대표는 △이면도로 장기주차 해결을 위한 셔틀버스 정기운행 △시간대별 주차 요금 탄력 운영 △보행체계 정립을 통한 이면도로 단계별 관리 △다양한 주차 정보 안내 시스템 도입 △지구단위계획 기법을 적용한

공동주차장 및 출입구 적용 △부설주차장 권장 및 공동주차장 개발 등을 주문했다.

또한 박광호 JPM 전무는 ‘원도심 내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적 방안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주차장 조성 유도 방안과 원도심 내 빈집 및 나대지를 활용해 주차장으로 공급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공공기여항목으로 현

금 항목을 도입해 기반시설 사업을 위한 재원확보에 나서는 한편 빈집의 건축물 철거비용과 주차장 조성비용을 지원해 생활SOC 주차장 조성을 검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강상수 대표의원은 “제주지역 원도심의 주차난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며 “어려운 민생경제에 주차 문제 해소를 통해 도민 걱정거리 중 하나라도 해소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호형 의원 “1의원 1정책지원관 촉구”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 회의서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이 지난 6월 30일 경상남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 제2차 정기회에 제주 대표 위원으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7개 광역 시·

도의회 의원들이 참석해 한국행정학회가 수행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 개선 연구’ 최종 보고를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현행 정책지원 인력 1명이 2명의 의원을 지원하는 구조로 인해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조례 제·개정과 예산안 분

석, 행정사무감사, 대외협력, 의정활동 홍보 등 다양한 의정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원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진 본회의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1의원 1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해당 건

의안은 행정안전부와 국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박호형 의원은 “지방자치 발전과 함께 지방의회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입법 활동 증가, 다양한 자치사무 확대, 주민 참여 기반의 민원 대응 등 의정활동의 양과 질이 크게 늘고 있다”라며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이 배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보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신기한 제주어 ④0

동더레 돌악 서러레 돌악

(관용어) ‘동으로 서으로 뽀다’는 말로, 동서 구분 못하고 헤멘다는 말

죽고대라

(부사) 죽을지언정. 죽을망정

“나 이거 쾄것에 흘려젼구나.” 정신 출려전 집 이신 알레레 느려오젠 슬퍼보난 그디가 어디산디 몰르는 디고 죽은 니커림질에 사둬서 동더레 돌악 서러레 돌악 후단 “죽고대라 동산 알레레만 가주.” 후명 느려오기 시작후엿젠마썸.

- 쾄것에: 귀신에
 - 흘려젼구나: 흘리게 되었구나
 - 정신 출려전: 정신이 나서
 - 이신: 있는
 - 알레레: 아래로
 - 느려오젠: 내려오려고
 - 슬퍼보난: 살피보니까
- 어디산디: 어딘지
 - 몰르는 디고: 모르는 곳이고
 - 죽은: 작은
 - 니커림질: 네 갈래로 난 길
 - 사둬서: 서 있으면서
 - 동더레 돌악 서러레 돌악: ‘동으로 서으로 뽀다’는 말로 동서 구분 못하고 헤멘다는 말
- 후단: 하다가
 - 죽고대라: 죽을지언정
 - 알레레만 가주: 아래쪽으로만 가자
 - 느려오기: 내려오기
 - 시작후엿젠마썸: 시작했습니다

양전형 저 「제주어 용례사전⑩」중에서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4차 변경)

월 별	회 수	회 기	의사일정	주요 처리 안건
계	11회	총 129일 • 정례회 2회 / 48일 • 임시회 9회 / 81일	본회의 30일 상임위 47일 예결위 22일 공휴일 30일	
2월	제435회 임시회	2.18.(화) ~ 2.27.(목) (10일)	본회의 2일 상임위 6일 공휴일 2일	• 교섭단체 대표 연설 •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 결산검사위원 선임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3월	제436회 임시회	3.18.(화) ~ 3.25.(화) (8일)	본회의 2일 상임위 4일 공휴일 2일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4월	제437회 임시회	4.4.(금) ~ 4.23.(수) (20일)	본회의 7일 상임위 4일 예결위 3일 공휴일 6일	• 도정·교육행정 질문 • 제1회 추경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5월	제438회 임시회	5.23.(금) (1일)	본회의 1일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6월	제439회 제1차 정례회	6.10.(화) ~ 6.27.(금) (18일)	본회의 2일 상임위 6일 예결위 6일 공휴일 4일	• 결산 및 예비비 승인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7월	제440회 임시회	7.16.(수) (1일)	본회의 1일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 등
8월	제441회 임시회	8.5.(화) ~ 8.14.(목) (10일)	본회의 2일 상임위 3일 예결위 3일 공휴일 2일	• 제2회 추경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9월	제442회 임시회	9.9.(화) ~ 9.16.(화) (8일)	본회의 2일 상임위 4일 공휴일 2일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0월	제443회 임시회	10.14.(화) ~ 10.31.(금) (18일)	본회의 2일 상임위 12일 공휴일 4일	• 행정사무감사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1월 ~ 12월	제444회 제2차 정례회	11.11.(화) ~ 12.10.(수) (30일)	본회의 7일 상임위 7일 예결위 8일 공휴일 8일	• 도정·교육행정 질문 • 2026년도 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2월	제445회 임시회	12.15.(월) ~ 12.19.(금) (5일)	본회의 2일 상임위 1일 예결위 2일	• 제3회 추경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 긴급 회의소집, 회기연장 운영 등을 위한 예비일: 21일
※ 연간 의사일정은 현안사항 발생 등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관행적 부패 · 갑질행위
행동강령
위반사례



Part1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이라는 이름의 함정

식사 제공, 금품수수입니다!



❶ 직무관련공무원인 하급 직원이 상급자에게 사비로 식사를 제공하면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일 수 있습니다.

❷ 출장비, 회비, 특근매식비를 모아 식사를 대접해도 위반 소지!

※ 직무관련공무원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강요된 식사, 의사 존중이 먼저



❶ “이번엔 OO팀이야!” 순번 정해 식사 강요? 하급자의 의사에 반한 식사 참여는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입니다.



차 좀 태워줘? 이건 사적노무!



❶ 직무관련공무원인 하급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차량 운전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경우는 금품 등 수수, 사적노무 요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Part2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갑질’은 NO

사적 모임 강요, 부당지시입니다



❶ 친목회·종교모임 가입 강요, 휴일 개인심부름 지시는 모두 ‘직무 범위 외 부당행위’입니다.

계약 실수, 민간에 전가?



❶ 공무원의 착오로 누락된 비용을 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는 명백한 책임 전가입니다.

산하기관 인력 끌어쓰기, 안 됩니다



❶ 공식 절차 없이 산하기관 직원을 불러와 부서 업무를 맡기는 건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입니다.

“갈등보다 협치, 정쟁보다 민생”



임정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도민의 삶을 개선하고 희망을 드리고자 노력해 온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어느덧 남은 임기 1년을 앞두고 되었습니다. 제12대 후반기 의회는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긴급 대응에 관한 특별조례안’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는 민생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도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대응 기구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민생 경제 안정 특별조례안의 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 여러분께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체계적인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및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통해 기존 상임위 체제에서 다루기 어려웠던 과제들에 대해서도 소규모 골목형 상점가 지원 확대, 지역화폐의 시장 소비 촉진 효과 확인,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 확대, 난임치료동행휴가 도입 등 상당한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의회운영위원회는 효율적 의

사일정 조정을 통한 ‘일하는 의회 구현’과 함께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도정과의 상설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한 소통과 협치 행보를 이어가고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기 위해 현장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도민의 뜻을 올바르게 대표하는 의회, 건강한 견제를 실천하는 일하는 의회,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적 의회, 도민 중심 민생 의회’ 실현을 위해 도정과 긴밀한 정책 공조를 기반으로 하여 도민 여러분의 실질적인 생활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협치라는 의회와 도정의 새로운 공간 속에서, 실효적 성과를 도출하고 체감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민 사랑에 보답하는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도의회는 도정과 공동으로 ‘국비 확보단’을 구성하여 국회를 대상으로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왔습니다.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삶을 위하는 의회, 도민의 삶을 바꾸는 의회, 도민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리는 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도의회는 도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울타리이자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튼실한 기둥이어야 합니다. 갈등보다 협치, 정쟁보다 민생을 우선에 두며 도민 신뢰에 부응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의회의 본질인 청렴과 책임, 민생 중심의 정치를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임무를 다할 것입니다.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여름방학, 답은 아이돌봄서비스

장승진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주무관

예년보다 더 빠르게 찾아온 여름은 ‘여름방학’이라는 소식을 전하며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들에게 크나큰 고민거리를 안겨주고 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등을 통해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

으나 오후 1시에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마저도 인원이 많을 땐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곤란한 상황에 부딪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양육 공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정을 위해 정부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다. 지난해 기준 서귀포시 1,922가구가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양육 공백

을 해결했다. 물론 아이돌봄서비스의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아이돌보미의 전문성과 경험 부족으로 인해 돌봄의 질이 일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서귀포시가족센터는 아이돌보미 채용 시 인·적성검사와 면접 검사를 통해 적격자를 선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양성 교육 및 매년 보수교육을 의무 실시해 돌봄의 질을 높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문제도 이

용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는 소득 기준에 따라 가~마형으로 나누고 이용 요금의 최대 85%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며 도 자체 예산을 통해 본인부담금의 20~40%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큰 비용 부담 없이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고민스러운 방학이 아닌, 자녀들에게 즐거운 추억이 될 방학이 될 수 있길 기원해 본다.

불법 광고물, 안전·품격 해치는 문제

표세진

아라동주민센터
주무관

도심 곳곳에 허가 없이 설치된 불법 광고물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유동 인구가 늘어나는 시기를 노린 각종 현수막, 벽보,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이 주요 도로와 교차로, 버스정류장에 무분별하게 부착돼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한다.

불법 광고물은 단순히 거리의 미관을 해치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퇴폐적이거나 사행성을 조장하는 광고 내용은 청소년들에게 해로운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의 건전한 이미지를 훼손한다. 거리를 오가는 주민들에게 불편감을 주며, 공동체 신뢰를 해치는 부정적 영향도 크다.

옥외광고물은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일부 사업주들은 영리만을 앞세워 법과 규정을 무시한다. 경기 침체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안

일한 생각이 만연하면서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 이런 무책임한 태도는 결국 우리가 사는 도시의 품격과 안전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경각심이 필요하다.

아라동은 장마철과 휴가철을 맞아 사고 예방을 위해 순찰과 철거,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광고물이 철거되면 다시 설치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스스로 불법 광고물을 개인의 홍보 수단이 아닌 모두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위법 행위로 인식하는 변화다.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는 규제와 벌금으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모두가 거리의 주인이라는 책임감을 느끼고 준법정신을 실천할 때 비로소 도시의 품격이 지켜진다. 휴가철의 활기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어가기 위해, 이제는 시민들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 작은 실천이 모일 때 불법 광고물이 사라진 쾌적한 거리가 완성된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사는 도시를 깨끗하게 만드는 일은 모두의 몫이다.

“민주주의 배워요”...의정 체험 ‘활기’



제주동여중 학생자치회, 동홍동주민자치회 연이어 모의의회 의정 체험 참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운영 중인 ‘의정 체험’ 프로그램에 학생은 물론 성인들도 참여하며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7월 9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주동여자중학교 학생자치회 학생들

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의회 의정 체험이 진행됐다.

이날 제주동여자중학교 학생자치회 학생 20명은 실제 회의 운영 방식에 따라 도정·교육행정 질문, 조례안 찬반 토론, 전자 표결, 3분 자유발언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직접 진행했다.

도의원과의 만남의 시간에는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과 고의숙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중부)

이 함께해 청소년들과 소통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김기환 의원은 “오늘의 경험이 학생들에게 지방의회 역할을 이해하고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을 배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고의숙 의원은 “민주주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으로, 의정 체험이 민주주의 가치를 직접 체득하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7월 11일에는 동홍동주민자치회(회장 김창우) 위원 17명이 의정 체험에 참여했다.

이번 의정 체험은 올해 새롭게 출범한 주민자치회 위원들에게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동홍동주민자치회가 그 처음을 채웠다.

이날 동홍동주민자치회 위원들은 ‘동홍동 제주어 사용 거점마을 지정’을 위한 마을 규칙 제정 건의안’을 상정해 찬반 토론 및 전자 투표를 통해 건의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특히 3분 자유발언에서 ‘세계 평화의 섬’ 지정 20주년을 맞이하는 소회와 비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우리의 실천 방안 등 도민의 시각에서 바라본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발언이 이어져 주목받았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오승식 교육위원장(교육의원, 서귀포시 동부)은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오늘의 체험이 야말로 주민자치회의 본질을 실천하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경험이 주민자치회의 성장과 지역 민주주의 정착에 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홍동)은 “오늘 체험한 민주주의 의사 진행 방식과 제도적 흐름이 동홍동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더 많은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자치회의 내실 있는 성장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청소년 모의의회 우수학생 중국·홍콩서 해외연수 진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을 대상으로 7월 25~29일 해외연수를 추진했다.

이번 해외연수는 중국과 홍콩에서 이뤄졌으며 중국의 역사 문화를 체험하고 홍콩과학기술대학교 방문을 통해 글로벌 교육 환경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봉 의장은 “우리 청소년들이 세계적인 안목과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이끄는 핵심 인재로 성장하는 데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농수축경제전문위원·의사담당관 의정 홍보 ‘최우수’



2025년 상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 홍보 최우수부서로 농수축경제전문위원과 의사담당관이 선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7월 7일 오전 도의회 의장실에서 2025년 상반기 의정 홍보 우수부서에 대해 시상식을 진행했다. 우수 부서에는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장려에는 보건

복지안전전문위원이 선정됐다.

제주도의회는 의정활동 상황을 도민에게 알리고 도민 의견을 의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서별 홍보 실적을 상·하반기로 나눠 시상하고 있다. 홍보 실적은 언론매체 홍보자료 제공 및 보도 실적, 홈페이지 게시판 자료 등록, 전략적 홍보 등 4개 항목, 정량·정성 평가로 구분하고 있다.

이상봉 의장은 “의정 홍보 우수부서 시상은 의정활동을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질 높은 보도자료를 언론기관에 제공하는 등의 적극적인 홍보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의정 홍보를 통해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